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8일(한국시간) 크라토보 베이스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조별리그 B조 2차전 경기를 갖는다. /AFP=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새리 은메달

청풍기유도...순천신흥중 김수연 '금'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새리(22)와 이혜경(22)이 제11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새리는 18일 충북 청주대석우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회 여자일반부 57kg이하급 결승에서 김미리(제주도청)에 반칙패로 은메달을 기록했다. 48kg이하급에 나선 이혜경은 준결승에서 최수희(성동구청)에 절반패,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에서는 순천신흥중 김수연(2년)이 63kg이하급 결승에서 김주영(울산스포츠과학중 3학년)을 맞아 자신의 주특기인 안다리후리기 한판승으로 1위에 올랐다. 김수연은 이번 대회 금메달로 올해 순천만대회(57kg이하급) 3위,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63kg이하급) 3위 입상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목포시청 박서진 해머던지기 1위

KBS배·코리아오픈 각각 금메달

목포시청 박서진(25)이 지난 17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여자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59m 07로 박희선(울산시청·58m32), 정다운(익산시청·49m11)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박서진은 지난 14일 제4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는 58m66으로, 이유라(한국체대·54m33)와 권영혜(합천군청·53m10)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수시청 진민섭(26)도 코리아오픈 경기 남자일반부 장대높이뛰기에서 5m 30으로 한두현(대전시청공단), 윤대옥(보은군청·이상 5m)을 각각 2, 3위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제4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천하림, 박준현, 조영민, 전주성으로 구성된 전남체육고는 남고부 4×100mR에서 42초14의 기록으로 한강미디어고(42초61), 대전체고(42초67)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우혁, 배주호, 한승완, 서준빈이 호흡을 맞춘 광주제고는 남고부 4×400mR에서 3분21초71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은 3분21초54의 경기체고가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여수문수중 김민섭 접영100m 금

광양만배유소년전국수영대회...접영50m도 우승

여수문수중 김민섭(2년)이 제8회 광양만배유소년전국수영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2관왕 물살을 갈랐다. 김민섭은 지난 17일 광양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중등부 접영 100m 결승에서 57초22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심완준(해원중·58초49), 3위는 김승민(은양 용화중·58초53)이 차지했다. 김민섭의 대회신기록은 종전 기록(58초81)을 무려 1초69나 앞당기는 좋은 기록으로, 지난 5월 끝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접영200m 은메달, 접영100m 동메달 획득의 아쉬움을 훌훌 털어냈다. 김민섭은 접영50m에서도 26초3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 2관왕을 기록했다. 여수 한려초 강지우(6년)도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강지우는 남초부 자유형100m에서 1분01초08로, 50m서는 28초02로 각각 1위로 골인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전남체육중 유지혜(2년)는 여중부 접영50m서 28초83으로 골인하며 안서현(명현중·29초61), 장서정(대성여중·29초64)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유지혜는 접영100m(1분05초12)와 계영200m서는 각각 2위에 올랐다. 여수 문수중 이충명(3년)은 남중부 자유형50m와 자유형100m서, 김영하(해남동초 6학년)는 남초부 배영100m서, 장채희(여수 문수중 2학년)는 여중부 자유형50m서, 윤인서(3년)·이강준(3년)·강문석(2년)·김동욱(3년)으로 구성된 전남체육중은 남중부 계영200m서 각각 3위로 입상했다. /최진화 기자

호날두 생애 첫 월드컵 득점왕 노린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첫판부터 헤트릭을 터트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개인 첫 월드컵 득점왕을 향해 출격한다.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FIFA 랭킹 4위)은 20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41위)와 조별리그 B조 2차전 경기에 나선다. 포르투갈은 지난 16일 스페인과 1차전에서 3-3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당시 패색이 짙었던 팀을 구원한 선수가 바로 에이스 호날두다. 호날두는 전반 4분 페널티킥으로 이번 대회 자신의 첫 득점을 거둔 뒤 전반 44분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그리고 2-3으로 끌려가던 후반 43분 그림 같은 프리킥 끝까지 성공해 헤트릭에 성공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34번의 헤트릭으로 이 부문 리그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인 호날두도 처음 경

3골 득점 선두 호날두 내일 모로코전 골사냥 1패 이집트는 개최국 러시아와 벼랑 끝 일전 살라흐 출전 변수...일본, 콜롬비아와 맞대결

3골 득점 선두 호날두 내일 모로코전 골사냥 1패 이집트는 개최국 러시아와 벼랑 끝 일전 살라흐 출전 변수...일본, 콜롬비아와 맞대결

호날두는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각각 1골씩만 넣는 데 그쳤다.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호날두가 월드컵 득점왕까지 거머쥐려면, 포르투갈 역시 사상 첫 월드컵 우승에 가까워진다. 월드컵 득점왕이 공식 제정된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이후 단일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호나우두(브라질·8골)였다. 나머지 대회에서는 6골만 넣어도 득점왕에 올랐다. 2006년 독일 월드컵(미로슬라프 클로제)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토마스 뮐러)만 5골로 득점왕이 결정됐다.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둔 포르투갈과는 달리,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란에 0-1로 일격을 당한 모로코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나선다. 양 팀은 이제까지 한 번 맞붙어 모로코가 승리를 거뒀다.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70위)와 이집트(45위)의 조별리그 A조 경기는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의 출전 여부가 변수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살라흐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어깨를 다쳐 이집트와 우루과이의 조별리그 1차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집트 감독은 "러시아전에는 나설 것"이라고 말했지만, 살라흐는 혼자서

는 유니폼을 입기 힘들 정도의 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는 0-1로 패한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다. 공격에 마침표를 찍을 살라흐가 있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최국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차전에서 5-0으로 승리를 거둬 이집트마저 꺾으면 16강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된다. 러시아와 이집트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란드(8위)와 세네갈(27위)은 20일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H조 1차전을 치른다. 두 팀 역시 이번 경기가 첫 만남이다. 폴란드와 세네갈의 경기 하루 앞선 19일에는 사라스크 모르도비아 아레나에서 일본(61위)과 콜롬비아(16위)의 H조 일전이 벌어진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1무로 콜롬비아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C조 경기에서도 일본을 4-1로 격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디펜딩챔피언 부진 징크스...독일도 제물되나

직전대회 우승국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멕시코에 일격당한 독일에 축구팬들 관심

'전차군단' 독일이 멕시코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직전 대회 우승국의 부진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독일은 18일(한국시간)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졌다. 2014년 브라질 대회 우승국인 독일은 월드컵 역사상 56년 만의 2연패에도 전장을 내고 러시아 땅을 밟았다. 1930년 시작한 지구촌 최대 축구잔치 월드컵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이탈리아(1934·1938년)와 브라질(1958·1962년), 2개국뿐이다. 브라질 이후로는 2014년 대회까지 52년 동안 한 나라가 연속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달콤한 열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세계축구의 '공공의 적'으로 떠올라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

에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승은커녕 망신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19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프랑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프랑스는 단 한 골도 못 넣고 세 골을 내주면서 1부 2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일찌감치 짐을 싣다. 전 대회 우승팀이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한·일 월드컵 우승국 브라질은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8강에서 프랑스에 0-1로 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독일에서 정상에 오른 이탈리아는 4년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2부 1패를 거둬 조별리그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8년 전 프랑스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 남아공 월드컵 우승은 스페인이 차지

브룩스 컵카 US오픈 2연패

브룩스 컵카(미국)가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US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 2연패에 성공했다. US오픈 2년 연속 우승은 29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컵카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사우샘프턴의 시네콕 힐스골프클럽(파70·7,421야드)에서 열린 US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연타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오버파 281타를 기록한 컵카는 작년에 이어 US오픈 정상에 올랐다. 시즌 첫 승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이다. 3회의 우승 중 2회가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나왔다. 컵카는 2015년 2월 PGA투어 피닉스 오픈에서 2012년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 미국 위스콘신주 에린 힐스에서 US오픈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올 해는 시네콕 힐스골프클럽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유소연 1년만에 우승트로피 품었다

LPGA 마이어클래식 우승...통산 6승

유소연(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정상에 올랐다. 유소연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어필즈 컨트리클럽(파72·6,62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투어 통산 6승을 달성하면서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윌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이후 약 1년 만에 들어 올린 우승트로피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16개 대회에서 5승을 수확했다. 유소연은 11번 홀(파5)에서 이날 첫 보기를 기록했으나 12번 홀(파3) 버디로 이를 곧바로 만회했다. 16번 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며 20언더파를 채운 유소연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의 추격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노르드크비스트 역시 15, 16번



유소연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어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내며 유소연을 1타 차로 따라붙였기 때문이다. 승부가 갈린 것은 17번 홀(파4)이었다. 이 홀에서 노르드크비스트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치우쳤고, 두 번째 샷은 그 린을 넘겨 벵커에 빠졌다. 유소연은 약 6m 거리의 만만치 않은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21언더파가 됐고, 19언더파였던 노르드크비스트는 약 2.5m 짧은 보기 퍼트마저 놓치면서 17언더파로 밀려 승부가 정해졌다. /연합뉴스